

“두발 딛고 일어서 끝까지 사열 마친 장면 감동적”

지난 3월 “雲庭” 창간호(2016년 봄호) 발간에 이어 제2호 2016년 여름호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운정재단의 출범과 김종필 증언록의 출판기념회를 기점起點으로 만들어진 창간호는 이한동, 정운찬 전 총리를 필두로 김수환, 박관용, 강창희 전 국회의장 등 많은 분들의 축하 글과 함께 운정의 근황을 담은 내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중앙일보 창간 50주년으로 기획된 증언록 “소이부답笑而不答”과 관련된 특집 내용들은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비록秘錄의 공개와 함께 세간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JP는 역사다”라는 표현이 운정의 새로운 수식어로 자리매김 되었고 역사는 ‘쓰여지는 것이 아니고 쓰는 것’이라는 사관史觀도 새삼 회자膾炙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운정재단 설립과 재단의 목적사업에 대해서도 많은 격려와 충고를 보내 왔습니다. 그 중 몇가지를 소개하면,

- ‘운정의 역정에는 이를 위한 탁월한 국가 전략과 해답이 담겨있다. 대한민국은 운정으로부터 나라 융성의 경륜과 혜안, 비전과 열정을 배워야 하며 이제 그 역사의 두루마리를 모으고 펼치며 널리 선포하는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
- ‘재단법인 운정’의 창립과 기관지 ‘雲庭’의 창간은 필연이고 뜻 깊은 일이다. 운정재단은 JP의 삶을 온축蘊蓄, 정리해 후학과 후배,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터전이자 국민 사이에 소통의 창구가 되어야 한다’는 등의 각계의견을 주셨습니다.

운정재단은 기록문화의 중요성과 아카이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고, 1차적으로 민간단체로서는 처음으로 JP와 관련된 모든 역사적 자료를 수집 정리, 집대성하는 아카이브 시스템을 꾸려서 연구자나 일반에게 생생한 사료로 제공함으로써, 현대사 공부는 물론이고 ‘위인 JP’의 면모를 있는 그대로 후세에 전하는 기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雲庭” 2016년 여름호를 내놓습니다. 당초 계획은 계간지季刊誌로 하되 재정이나 사업 규모상 재단 설립 1차사업연도인 금년에는 봄, 가을호 두 번 발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짧은 생각이었습니다. 먼저 증언록 출판기념회가 의례적 단순한 행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날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 가득 모인 축하객들의 성원과 열렬한 지지뿐 아니라, 각계 각층의 지도자들과 언론계에서 보여



김진봉
(재)운정재단 이사장

준 관심과 평가는 반드시 글로 기록되어야 할 내용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카소네 전 일본 총리대신을 비롯한 국내 각 당 대표들의 축하들도 행사 당일의 일과성 청취 용도로만 사용하기에는 아쉬운 메시지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저자 변遷'은 단순한 소회를 넘어 현실정치에 대한 준엄한 가르침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각계각층에서 보여주신 법인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반응을 소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지난 3월 초부터 시작된 후원금 규모는 불과 2개월 만에 5천여 만원이 답지하였고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시겠다고 의사를 전달해 오시는 CMS 자동이체신청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姜富子 원로 연기인, 高恩晶 원로 성우, 金慕姬 전 보건복지부 장관, 徐英姬 전 국회의원 등 다수의 여류들의 성금은 운정 선생에 대한 세인들의 관심과 애정이 폭 넓다는 것을 새삼 일깨우는 대목이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육군사관학교 개교 70주년 기념일에 운정 선생을 자랑스러운 육사인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수상 소감 가운데 임관 후 67년 만에 모교를 찾으며 같이 임관되었던 8기 동기생 1,300여 명 중 3분의 1 가까운 400여명이 전사했던 가슴 아픈 기억을 떠올린 대목에서는 참석하였던 많은 이들을 숙연케 하였습니다. 살신구국殺身救國 전우들을 대신하여 수상하게 되었다는 답사는 새삼 참군인의 모습을 떠올리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날의 백미白眉는 후배들인 육사생도들을 사열하는 장면이었습니다. 2008년 뇌경색으로 쓰러진 이후 지난 8년 동안 휠체어에 의지하여 다니시던 운정 선생이 두발을 딛고 일어서 기립자세로 끝까지 사열을 마쳐 후배들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보여주었습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이런 주요한 행사와 사업 성과들을 시의時宜에 맞게 기록하고 알리고자 여름호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번 운정 여름호의 표지는 이날 기립자세로 서서 사열하는 사진을 커버스토리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 나라에 홀로 남으신 어른의 상징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을 마음에 새기며 저희 (재)운정재단도 두발을 딛고 분연히 일어나 국민을 위해 무엇인가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어야 하겠다는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하여봅니다. 기록문화의 창달과 운정의 공업功業을 기리기 위해 노력하는 운정재단의 후원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격려가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 6.